

#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4월 뉴스레터 vol. 42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24%의 기적 죽음 앞에는 좌우 이념이 없다
- 채우고 비우고 고 채현국 선생님을 기억하며
- 장례 후기 아름다움과 정성이 남긴 이별식을 마치고
- 알쓸신장 장례비용 얼마나 들까
- 안부를 묻다 떠난 자의 뒷모습에 대한 기록, 김완 하드웍스 대표
- 채비학교 제2기 예비 상주학교 수강생 모집



## 죽음 앞에는 좌우 이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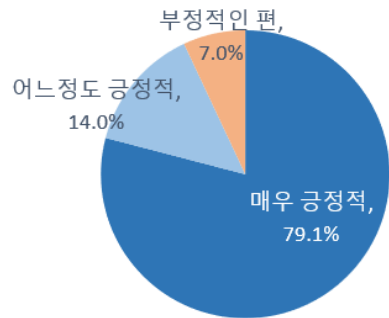


지난 호 뉴스레터 설문조사에서는 조합의 사회장 장례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겨레두레는 민주와 평화, 평등과 인권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민주사회장을 맡아 치러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응답자의 무려 79.1%가 '매우 긍정', 14.0%가 '어느 정도 긍정'을 선택하여 도합 90.3%가 '긍정'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협동조합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맑은 물, 좋은 흙과 같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회장 지원에 대한 의견



그간 우리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재권력은 시민이 모여서 연대하고 협동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한편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각자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민주적 운영이 핵심입니다. 한편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건강해진 협동조합이 많아지면 사회 밑바닥까지 협동과 연대, 민주주의가 뿌리내려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민주주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가장 살기 좋다는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도 이런 경로를 거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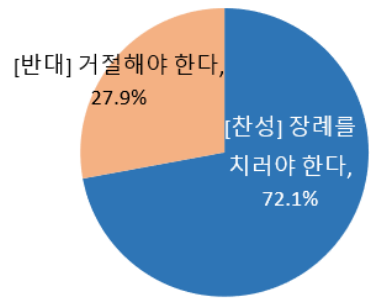
조합원들이 민주사회장을 93%나 지지한 것도 협동조합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부정적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도 직접 여쭙진 못했으나 어쩌면 저희가 무료로 사회장을 치렀다고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문에서 '사회장 지원'이라고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겨레두레는 백기완 선생 장례를 포함하여 사회장을 모두 유료로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 장례만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후원금 및 여러분 조합비 중 1%에 해당하는 공동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만약 유명 우익 보수인사가 한겨레두레에 장례를 의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사무국 내부에서 농담처럼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장례를 의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란 말이 나와서 다 같이 웃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유명 우익 정치인이 만약 우리에게 장례를 의뢰한다면 우리는 위와 동일한 이유로 거절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응답부터 공개합니다.

우익 보수 인사의 장례 의뢰 수용에 대한 의견



72.1%가 찬성, 즉 “치러야 한다”, 27.9%가 “거절해야 한다”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의외였는데, 반대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찬성하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말하겠지만 고인, 또는 가족이 우리 조합에 장례를 의뢰했다면 왜 많은 상조회사를 두고 하필 우리 조합이었는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장례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가는 길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모든 차별과 증오를 무마시킨다. 비록 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장례를 치르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평등한 것이고 그분 장례 의미는 살아온 삶을 추억하고 추모하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성숙한 의식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이슈로 나뉘어 시끄럽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 하지만 정치는 물론, 사랑을 전파해야 할 종교까지 나서 가짜 뉴스, 갈등과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어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반대할 자유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선물이며 의견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악마화하고 증오하며 차별과 배제, 폭력으로 입을 막는 것, 이런 행위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생채기가 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 조합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죽음 앞에 좌우 이념이 어디 있는가?”

민주사회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조합원들이 자기와 이념적 지향이 다른 우익 보수인사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차이가 없으니 다 껴안고 포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보며 저는 조합이 너무도 좋아졌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파머 파카란 분이 쓴 <비통한 자의 정치학>에 나오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안의 차이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갈등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엔진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간다.”

한겨레두레는 오늘도 경제적 공동체를 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 고 채현국 선생님을 기억하며



지난 4월 2일 늦은 저녁,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의 부음을 접했다.  
순간 작년 가을 즈음 전화 통화를 한 기억이 났다.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이 선생 보고 싶네. 막연(?)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나고 나면 그런 것이 참 즐거운 일이지요. 한번 찾아와요.”

“예.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꼭 찾아뵙게요”

“그래요 꼭 봅시다. 안녕.”

병환 중이라 짧은 통화였지만 목소리 너머로 의연함과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고인과의 인연은 내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시작됐다.

사북읍지와 구술사 작업을 하는 도중 마을 골짜기(일명 소 잡는 골)에서 ‘채기업사장 송덕비(蔡基業社長頌德碑)’를 발견하게 됐다. 소설가 이병주의 비문이 적혀 있었다.

당시 지역 유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채기업 사장(1907~1988)의 공덕을 기리고자 제작한 송덕비였다. 채기업 사장이 바로 고인의 선친이다.

1950년대 중반 백운산 정상 인근에서 소규모 석탄광을 운영했던 채기업 사장이 당시에 남면에서 동면(지금의 사북읍)으로 들어오는 길을 손수 개척(당시에는 기차도 없었고 소수의 화전민만이 살았다)하였고, 주민들이 그 공덕을 기려 송덕비를 세운 것이다.

1968년 12월 지금의 사북역 입구에 설치되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 마을 골짜기로 옮겨져온 것이다. 채기업 사장의 일대기는 고인의 인터뷰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어 생략하고자 한다.

2016년 사북에서 채현국 선생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한번 갖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필자는 바로 연락했다.

선생님은 "사북이라고요? 그럼 내가 당연히 가야지요"라며 흔쾌히 허락하셨다.

강릉에서 기차를 타고 오시면서 황톳빛 생활 한복에 한 손에는 쥐포와 아귀포를, 한 손에는 지팡이랄 것도 없는 막대기를 짊고 사북역에 내리시는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할아버지였다.

나는 인사를 드린 후 선생님을 모시고 바로 선친의 송덕비를 찾아갔다. 당신께서도 말만 들었지 송덕비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다.

그날 저녁 청국장과 막걸리를 드시면서 젊은 시절 아버지를 따라 사북에 왔고 산꼭대기에서 광부들과 탄을 캐던 얘기를 하셨다. 당시에 사북에서는 그리 큰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날 강연을 앞두고 과거 삼척 도계의 흥국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전직 광부들이 찾아왔다. 모두 70대 중반을 훌쩍 넘겼고, 당시 젊은 사장님이 사북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강릉, 도계, 영월 등지에서 찾아온 것이다. 1960년대 흥국탄광은 탄광 중에서 가장 월급 많고 근무여건이 좋은 곳이었다고 한다. 또 일찍이 개광을 하면서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고, 광부들 사이에서는 서로 흥국탄광에 입사하려고 경쟁이 심했다고 한다.

선생님은 탄광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사람을 사지 막장으로 몰아넣고 그 채굴 대가로 돈을 버는 일이라 오래 할 일은 못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강연 주제는 '함께 살기, 쓴맛이 사는 맛'이었다.

5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선생님은 돈을 번다는 것의 즐거움과 그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무서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하라 하셨다.

선생님은 동학운동에서 해방 전후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에서 우러나는 삶의 진한 향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고인을 시대의 사표(師表)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런 일체의 모든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긴 분이라 더욱 고인을 그리워할 것 같다. 항상 통화나 문자로 마지막에 남겨주신 말씀을 아로새기며 삼가 그를 추모한다.

“안녕.” ❀

이용규 | 조합원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 아름다움과 정성이 남긴 이별식을 마치고



지난 1월, 아버지 보내드리는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도움을 주신 채비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지만 가시는 과정은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나니 안타깝게 황망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겨레두레에는 3년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장례 시 슬픔을 미끼로 상술을 펴는 다른 상조회와 다르다는 생각을 해서 채비에 가입을 했고, 웹사이트 정보를 통해 장례의 과정에서 상술과 부산스러움 속에서 실종될 수 있는 고인을 향한 애도의 마음을 잘 살려주는 상조회라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사전에 채비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엔 시설이 깨끗한 장례식장으로 모신 후에 채비에 부고를 알리니 장례지도사님이 곧 오셨습니다. 장례지도사님은 장례의 순서와 장례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그리고 장례 이후에 해야 할 행정적인 처리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염을 하고, 제를 올리는 모든 과정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줄 모르고 걱정을 하였다 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손님들도 장례식을 많이 가 봤지만 모시는 형식에 진심이 담기고, 염하는 과정을 이렇게 아름답고도 성의 있게 살려주는 장례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고생하다 가시는 분을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채비와 장례지도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애경 | 조합원

## 장례비용 얼마나 들까 - 장례식장 편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은 궁금한 것이 많다. 의례나 절차 등에 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지가 제일 궁금해 한다. 대략의 비용을 알고 있어야 지출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장례비용의 구성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장례비용은 1443만 원으로 꽤 큰 액수이다. 대체로 3일이면 끝나는 장례에서 어디에 이 많은 비용이 드는 걸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그리고 **장지** 부분이다.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장례식장인데, 임대 비용과 식음료 비용, 기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 비용은 청소비, 관리비 등인데 그리 크지 않은 비용이기에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임대 비용에는 시신을 모시는 안치료,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 입관실 사용료 등인데 장례식장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분향실과 접객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장례식장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 대학병원 중에는 하루 사용료가 500만 원이 넘는 장례식장도 있다. 안치료는 1일 사용료가 10만 원 이내, 입관실은 염습 시 1회 사용료가 20만 원 ~ 40만 원이다.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따르면 임대료의 산정 기준은 입실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는 시간당 비용으로, 12시간이 넘어갈 경우는 24시간 비용을 받는다. 보통 3일장을 진행할 경우 48시간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대부분 표준 약관에 따르지만 간혹 3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장례식장이 있으니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음식 비용에는 유족과 조문객에게 대접하는 식사와 제사 음식 등이 있다.

평균 식사 비용은 대부분의 장례식장 간의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특정 음식(홍어 회나 문어 숙회 등)을 사용하는 장례식장의 경우 음식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장례식장에 음식 비용을 문의하면 대개 조문객 1명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한다. 장례식장에서 식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음식의 질이나 구성면에서 이 금액이 얼마나 비싼 금액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사상을 차리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처음 빈소를 차릴 때 기본 제물, 입관 후 성복제, 상식과 발인제 등 여러 차례 제물을 바꿔 올린다.

제물을 다 갖춰서 주문할 경우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상에 간단한 상식 제물을 추가하면 성복제나 발인제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장례식장은 일종의 임대 사업자인데 수도권 대형 장례식장을 제외하고는 주로 식음료 판매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문객도 줄고 음식 소비도 줄다 보니 장례식장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다음 호에는 상조회사와 우리 조합이 제공하고 있는 장례용품과 인력서비스 영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떠난 자의 뒷모습에 대한 기록, 김완 하드웍스 대표



김완 하드웍스 대표는 자신을 ‘스캐빈저’라고 말했다. 첫인상만큼이나 강렬한 언어로 그는 자신의 업을 규정했다. 스캐빈저(scavenger), 우리말로 청소동물이다. 다른 동물을 사냥하지 않고 서식지에 있는 죽은 동물과 식물을 먹어 치운다. 대머리 독수리, 송장벌레, 검정파리, 말벌, 꼬등이, 너구리 따위가 대표적이다.

### 떠난 뒤에 남은 것

인간 사회에도 ‘스캐빈저’는 도처에 있다. 세상에는 쓰레기와 쓰레기 아닌 것, 오직 두 종류의 물성(物性)만이 존재한다. 이중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많다. 어디에선가, 쓸모없다고 판정된 것을 치우는 그들을 우리는 ‘청소부’라 부른다.

“저는 누군가 쉽사리 볼 수도, 치울 수도 없는 곳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독사 현장이라든지 자살 또는 범죄현장, 극단적으로 쓰레기 많이 쌓여 있는 집, 그리고 동물 사체와 오물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을 주로 청소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특수청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다.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한 청소부’이다. 지워지지 않는 지독한 냄새와 섯불리 손대기 어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난 이들의 뒤처리를 하는 것이다.

“특수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남다른 일, 특별하고 어려운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다를 뿐 일 자체가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식탁 치우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식탁 위에 차렸던 것을 주방으로 옮기듯 그저 집에 있는 것을 끌어모아 집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는 심상하게 말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정서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심상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 있는 자만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간다. 죽음은 아득히 먼 미래의 일이며 실감할 수 없는 비현실의 세계일 뿐이다. 죽음은 현실에서 격리되었거나 거의 완벽하게 은폐돼 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그런 장소에서 그를 부른다.

## 죽음의 민낯들

김완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다. 출판과 트렌드 산업분야에서 일하면서 오랫동안 ‘고스트라이터(유령작가)’로 살았다. 취재와 집필을 위해 몇 년 동안 일본에 머물기도 했는데,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귀국해 ‘하드웍스’를 설립했다.

“저는 체질적으로 청소를 좋아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어찌면 세상의 수많은 일 가운데 청소를 인생의 직업으로 받아들인 가장 큰 동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악취 풍기는 실내를 마침내 사람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원래의 공간으로 돌려놓았을 때, 살림과 쓰레기로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을 완전히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집으로 만들었을 때 저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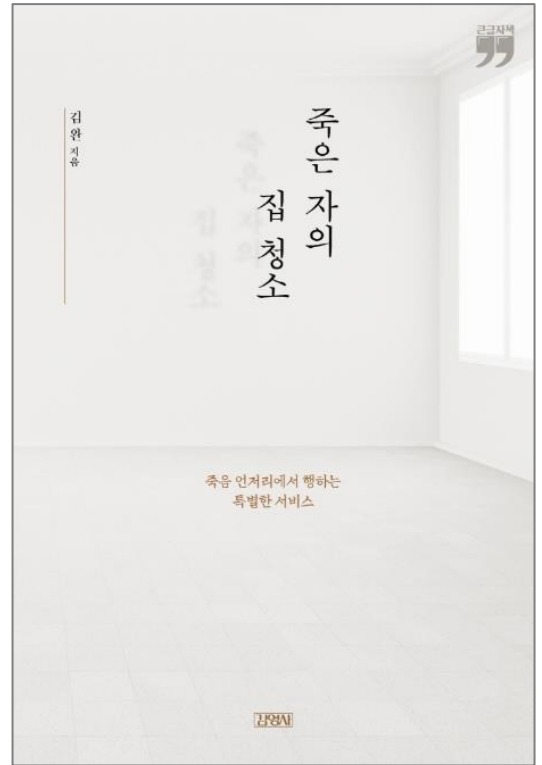
지난 10여 년 간 그는 낯고 험한 현장을 찾아다녔고 고독사의 현실, 민낯을 마주하였다.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 청년에게까지 엄습하는 쓸쓸한 죽음. 그 차가운 현실은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생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 삶의 절벽 끝에서 아등바등 분투한 흔적이 현장 곳곳에 남아 있다.

피와 오물을 닦아내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고 한다. 2020년 5월, 그는 그가 접했던 현장의 기록을 묶어 <죽은 자의 집 청소>(김영사)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자신처럼 누군가도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용기를 얻기 바라며.

“죽은 사람의 방을 치우다 보면 의외의 기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붙잡아 뒀으면 하는 간절함, 누군가에 대한 원망, 남은 이들에 대한 작별 인사가 담긴 짧은 메시지들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이토록 힘들게 몰아세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아픈 기억들, 상처를 줬던 날카로운 말들,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고, 저를 옹아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에 도달합니다. 현재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순간의 일에 집중하려 분투하고요.”

김 대표는 어찌면 쓰레기를 치우면서 어지러운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스스로 묻는다. ‘부단한 하루하루의 인생은 결국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것인가.’ 해답도 없고 답해줄 자도 없다. 그는 영원히 풀길 없는 화두를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김완 저 | 김영사 | 2020년 05월

## 우리가 건네야 할 위로의 말들



### 우리는 모두 자살 사별자입니다

고선규 | 창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용기 내어 빨리 극복해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어서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정신 차리라' 라는 말입니다.” (p.90)

우리나라는 매년 자살률 1위를 갱신하고 있다. 매일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하지만 자살 사별자 뒤 남겨진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다. 남은 이들은 고인의 죽음 원인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 더 많은 고통에 시달린다. 유족은 고인과의 이별로도 힘든데 조문을 온 이들은 고인의 사인을 묻는다. 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뒀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될 때까지 왜 방치했냐고 다그친다. 그들 모두 그것이 위로라고 건넬 것이다.

단지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유족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된다. 어쩔 수 없이 건네야 하는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많은 상처를 내기도 한다. 장례란 고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아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자살 사별자입니다〉에서는 저자가 자살 사별자 유족을 상담하면서 겪은 사례를 토대로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건네야 할 여정과 우리 사회가 이들을 대할 때 취해야 하는 태도를 차분히 소개한다. 사망 전 자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인이 보였던 다양한 심리행동 변화와 죽음 직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을 최대한 자세히 탐색해보는 심리 부검 절차를 통해 고인의 생애를 추적하고 질문한다. 이를 통해 남겨진 이들은 애도의 여정과 치유를 경험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끔 타인에 대해 잘 모르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으면서, 마치 자신은 인간의 삶을 안다는 듯이 말한다. 훈계하고 다그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인의 삶을 틀어버리고 싶어 한다. 그조차도 자신에 대해 잘 모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감정에 자주 노출되는지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말이다.

자살 사별자 유족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 가야 한다면 먼저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고통에 처한 그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정확한 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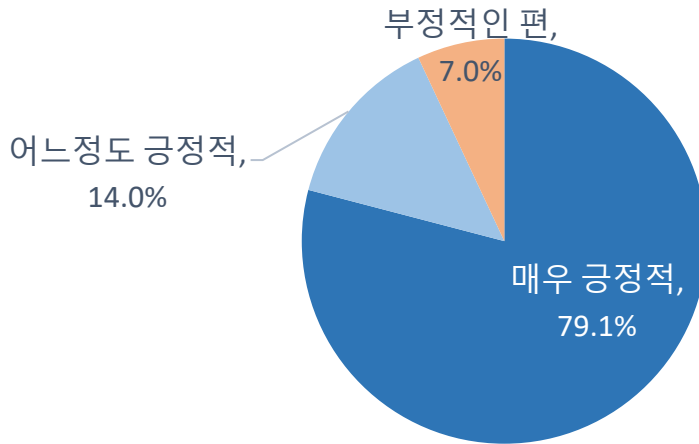


1

조합의 사회장 지원에 대한 의견

**‘한겨레두레의 사회장 지원에 찬성한다’ 93.0%**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회장 지원에 대한 의견 (n=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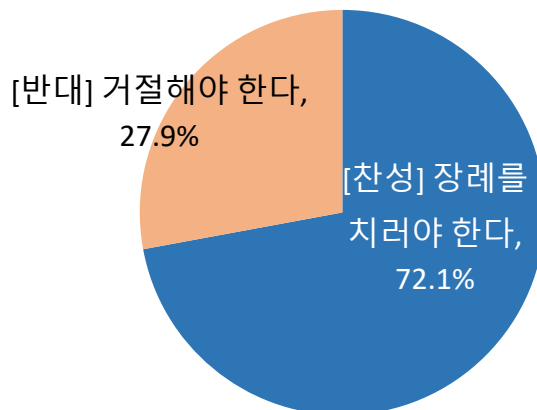


2

유명 우익 보수 인사의 장례 의뢰 수용에 대한 의견

**‘우익 보수 인사라도 장례를 의뢰한다면 치러줘야 한다’ 67.7%**

우익 보수 인사의 장례 의뢰 수용에 대한 의견 (n=43)



\*자료출처: 조합원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 43명, 2021. 4)

## 정경모 선생 추모식 진행



### 분단시대의 망명객, '통일나비'로 부활하다

통일운동가 고 정경모 선생이 일본에서 작고한 후에 사실상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서 영면했습니다. 1970년 일본으로 건너간 지 51년 만입니다.

고 정경모 선생 유해는 지난 3월 31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간 채비에 안치돼 조문객을 받았고, 4월 1일 수운회관에서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오전 서울 강북구 '문익환 통일의 집'에서 노제를 진행하고 오후 경기 모란공원에 유해를 봉안했습니다.

고인은 1924년 서울에서 출생해 1945년 일본 게이오대 의학부를 수료하고 광복 후에는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에모리대 문리학부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 통역관을 맡으면서 역시 통역관이었던 고 문익환 목사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박정희 독재정권에 반발해 1970년 일본으로 정치적 망명을 택하고, 역시 1972년 일본으로 망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교분을 쌓아 1년 뒤에는 석방운동을 진행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1989년 문익환 목사와 같이 방북해 북한의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4·2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자수서를 쓰면 귀국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당국의 제안을 뿌리치고 일본에서 활동하다 지난 2월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유해봉안위와 함께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 김상현 이사장,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선출



지난 3월 25일, 김상현 이사장님이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지속 가능한 협동경제를 실현에 하기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한두레협동조합, 2021 정기 대의원 총회 온라인 진행

충남한두레협동조합

### 2021 정기 대의원 총회

1.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자투표식 온라인 총회 실시

2. 전자투표 진행 의제

- 의안1. 2020년 전차의사록 승인의 건
- 의안2. 2020년 사업/회계 감사보고의 건
- 의안3. 2020년 결산보고 및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의안4.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안5. 신임 임원승인의 건



지난 3월 24~25일 충남한두레협동조합의 정기 대의원 총회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비대면(개별방문을 통한 별도 자료집 사전 배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5건 이상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온라인 서면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제2기 예비 상주학교 수강생 모집

## 장례, 어떻게 준비할까?

죽음이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이승의 일을 두고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정리하고 준비된 이별을 한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혹여, 이런 일들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 있는 이 순간 나와 가족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비학교 강좌를 통해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죽음과 장례를 이해하고, 임종에 임박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 취지

- 장례를 이해하고 잘 준비할 수 있다
- 내가 원하는 장례를 계획할 수 있다

## ■ 개요

- 대상: 장례가 임박한 분, 미리 장례를 준비할 분, 장례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 등
- 일정: 2020년 4월 29일(목) 오후 4~6시
- 교육 정원: 총 15명 (Zoom 화상 10명, 오프라인 5명)
- 신청: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dxhCi6fp5wD8UUX27> 전화: 02)722-9517
- 교육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 프로그램

주 제	강 사
① 채비장례란 ② 추모식과 장례 진행 과정 이해 ③ 사전준비와 사후에 정리할 일들 ④ 부모(가족)와 추억 만들기, 가족사 쓰기 등의 의미	박태호

## ■ 강사소개

## 박 태 호

한겨레두레협동조합 대표 장례지도사.

10년 동안 장례지도사로 살며 죽음은 삶의 과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죽음의 풍경은 익숙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다. 철학을 가진 장례지도사를 꿈꾸며 현재 동국대에서 생사학 석사과정을 전공 중이다. 지은책(공저)으로 <죽음이 삶에게 안부는 묻다>(검둥소)가 있다.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 신입 조합원 교육

### 협동조합으로서의 우리조합 이해하기

#### ■ 취지

협동조합과 우리조합의 의미, 채비장례의 필요성, 우리조합의 역사, 미션, 방향과 가치 등

#### ■ 개요

- 일시: 2021년 4월 16일(금) 오후2시~4시
- 교육 방법: 온라인 그룹 회의 방식 (Zoom)
- 강사: 김상현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장
- 신청: 온라인 접수: <https://forms.gle/XB9p2DwKCADNYfv66> 전화: 02)722-9517

## 2021. 3월

조영호 조합원 모친상  
이인희 조합원 부친상  
백옥진 조합원 부친상  
이학기 조합원 매제상  
서동재 조합원 빙모상  
한정택 조합원 부친상

장교순 조합원 조카상  
권태호 조합원 부친상  
황성대 조합원 처남상  
안정석 조합원 부친상  
양영철 조합원 부친상  
배인용 조합원 부친상

김경일 조합원 모친상  
김광호 조합원 빙부상  
최선아 조합원 모친상  
김혜란 조합원 시부상  
정윤수 조합원 부친상  
배현지 조합원 배우자상

\*추모지원: 유창주님, 장영민님

## 2021. 2월

장성오 조합원 모친상  
김해랑 조합원 부친상  
이해원 조합원 부친상  
모성훈 조합원 빙모상  
김종신 조합원 모친상

정용오 조합원 모친상  
배영란 조합원 모친상  
김흥래 조합원 빙부상  
홍성표 조합원 부친상  
최종숙 조합원 부친상

김영혜 조합원 시모상  
김명운 조합원 모친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강경희 조합원 모친상  
최빛나 조합원 자매상

## 2021. 1월

전현근 조합원 모친상  
장교순 조합원 부친상  
조수경 조합원 모친상  
이애경 조합원 부친상

남궁성태 조합원 부친상  
김금옥 조합원 시부상  
고영빈 조합원 부친상  
서화경 조합원 시부상

유수강 조합원 시모상  
고준환 조합원 부친상  
문성만 조합원 부친상  
윤활식 조합원 본인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작은장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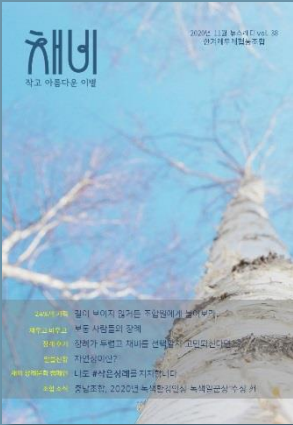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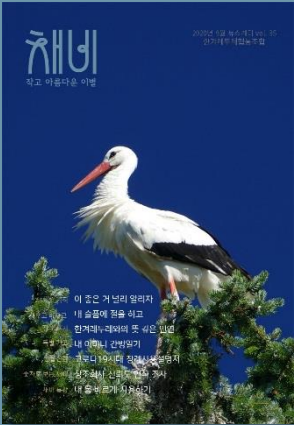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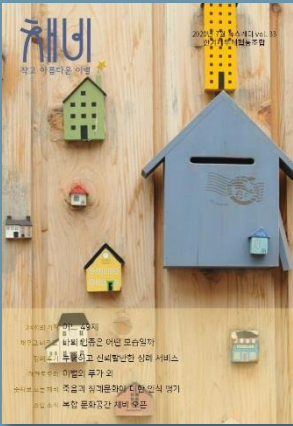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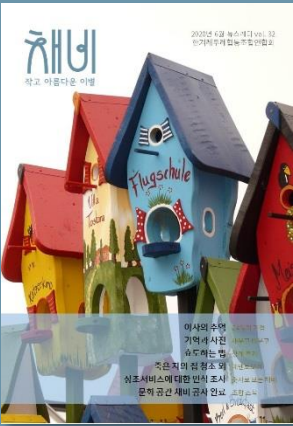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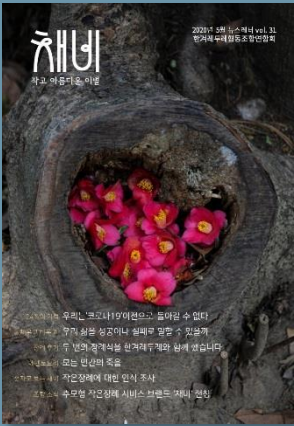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지서명하기**



#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http://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